"국제 정세 통해 그리스 비극 들여다봤죠"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 펴낸
최혜영 전남대 교수

'미친 헤라클레스' '헬레나' 등 비극 탄생 배경 심층 분석

최혜영 교수

디오니소스 극장

"그리스 비극 또한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근친상간, 존속살인 등 인간 심연의 본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사실 이 같은 비극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고 있죠."

'그리스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비극은 예술적 보고(寶庫)로 꼽힌다.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둔 비극은 단순한 신화를 넘어 끊임없이 전승되고 변주된다. 그러나 대체로 작품 소개나 분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국제적 정세와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그리스 비극을 새롭게 조명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사학과 최혜영 교수가 펴낸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는 비극의 기원에서 당대의 '국제 정세'까지 분석한다. 무엇보다 그리스에서 유학한 서양 고대사 전공 학자의 전문가적 식견이 녹아 있어, 새로운 각도로 비극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최근에 기자는 최 교수가 학회 참석 차 서울에 가 있는 관계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최 교수는 "그리스 비극이 과연 순수한 예술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일테면 이런 내용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비극 속에서 왜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인간'으로 그려졌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수년 전 문학과 철학, 역사 전공자들이 참석했던 한 학회에서 그리스 비극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을 맡았던 한 문학 전공 선생님이 내 글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철학 교수님은 그리스 비극에 대해 가졌던 이제까지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고도 말했구요."

최 교수는 그 같은 그리스에 대한 생각은 '후대의 시대착오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리스를 '단일 민족적 국가'였을 거라고 단정한 데서 비롯됐을 거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 교수는 "비극이 탄생하던 당시의 그리스는 서로 다른 정체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폴리스들의 집합체였다"며 "아테네, 테바이, 아르고스 등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의 국제 관계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면 비극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그리스 비극은 '운명론'이라는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하나는 주인공들이 지니는 성격적 결함에서 찾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플롯을 기교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가치를 뒀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최 교수는 "원래 비극은 디오니소스 신을 '환대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바쳐진 여러 제의 가운데 하나인 무대극으로 출발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테네 적국의 왕실 이야기를 다루다보니 그 나라의 어두운 면이 강조돼 슬픈 이야기로 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헬레나'나 '이온' 등을 비롯한 극들은 비극이라는 말을 쓰기 힘들어 일부 학자들은 이 작품들을 '코미디'라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듯한 추론이 가능하다. 당시의 국제적 정세가 '코미디'를 '비극'으로 전이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같은 사례는 아테네 3대 비극 시인인 에우리피데스의 '미친 헤라클레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극장을 가득 메웠을 아테네인이나 동맹국 사절단을 향해 헤라클레스의 나약함과 그의 가문에 내린 저주와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를 수호신으로 받드는 스파르타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신감을 심어주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최 교수는 어떻게 그리스 비극에 입문하게 됐을까?

"그리스 역사와 문화 저술의 선구자인 고 김진경 교수의 저서를 통해서"라고 한다. 대학 강단에서 그리스 역사와 문학을 강의하면서 점차 관심의 영역이 넓어졌다.

최 교수는 경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그리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리스 이와니나 국립대학에서 수학하고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에 임용된 건 지난 2003년이었다. 당시 경북의 모 국립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광주라는, 남도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곳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외가 쪽이 전라도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광주가 낯설지 않았다"고 했다.

"6월 말에도 국제 학술대회가 있어 지중해 연안에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양고대사에 대한 논문뿐 아니라 좀더 대중과 소통하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인문서도 쓸 계획입니다."

한편 최 교수는 한국 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편집위원장, 전남대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스와 로마 역사에 관한 많은 논문과 저서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공연 모습.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6~9일 앙코르 공연

극단 '청춘'…예술극장 '통'

'제32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가 앵콜공연을 연다.

6일 오후 7시, 7일·8일 오후 8시, 9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예술극장 통.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김광탁 작·오설균 연출)는 '간암 말기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며 굿을 해달라고 했다'는 작가 김광탁의 자전적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병든 아버지를 통해 바라본 눈물 겨운 가족애를 그리고 있다.

병원에서 시골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며 체력이 떨어져간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의존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럽다. 아버지는 병간호에 힘들어 지쳐 잠이든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젊은 날 아내를 위해 심었던 홍매를 보고 건강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한 회환으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다. 임종을 앞둔 병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마당을 걷는 아들은 그제서야 내내 살갑지 못했던 부정과 화해한다.

배우 이기인, 노희설, 김은미, 채희영, 김민성 등이 출연한다. 관람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문의 062-470-52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민속예술축제 광주예선 지산농악보존회·대촌중 대상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광주시예선대회에서 일반부 지산농악보존회(지산농악)팀과 청소년부 대촌중학교(광산농악)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15개팀과 청소년부 6개팀이 참가해 지난 1년여간 준비해 온 솜씨를 뽐냈다.

일반부 금상은 진도북춤놀이보존회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빛고을전통문화예술단이, 동상은 북구종합노인복지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더불어락복지관, 북치고 장구치고, 일심가무악단, 꽃뜨루예술단 등이 차지했으며 빛고을상은 빛고을악단 등 6개팀이 수상했다.

청소년부 금상은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 은상은 광주동초충효풍물패, 동상은 금부처 판타스틱 사물놀이, 장려상은 풍암세로토닌드럼클럽이 각각 수상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의 '산월풍작농악'의 시연 공연 모습.

광주시향 '시 읽는 클래식' 8일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시음전(詩音展) ; 너의 슬픔에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슬픔을 주제로 한 시를 전문성우가 낭독하고 이어서 광주시향이 선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휘는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맡았으며 드뷔시가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3번'을 시작으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 '오제의 죽음',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이 연주된다.

연주와 함께 이상국의 '혜화역 4번 출구', 신철규의 '슬픔의 자전',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안현미의 '내 슬픔에게 접 붙인다' 등 총 다섯 편의 시를 낭독한다.

낭독가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우 권인지씨다. 권 씨는 '2017 백상예술대상'의 내래이션을 맡기도 했으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을 비롯해 다수 CF 등을 녹음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성우 권인지(왼쪽) 지휘자 김영언